

세상을 보는 넓고 깊은 눈

미지북스는 인문, 사회, 경제 분야의 좋은 책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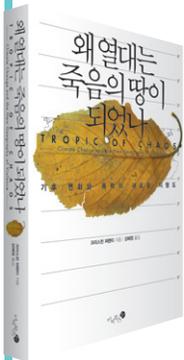
블로그 • mizibooks.tistory.com

트위터 • twitter.com/mizibooks

왜 열대는 죽음의 땅이 되었나

기후 변화와 폭력의 새로운 지형도

크리스천 퍼렌티 지음 | 강혜정 옮김



전 세계를 뒤흔드는 폭염, 가뭄, 폭우
기후 변화는 이미 도래했다!

북극곰의 문제가 아닌,
지금 이 순간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UN은 2007년에 그들이 나섰던 인도적 구호 중 한 건을 제외한 모든 사안이 기후와 연관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변화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가장 먼저 열대 27억 인구의 땅이 재앙의 현장이 되었다.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저자는 지구 곳곳 ‘혼돈의 열대’에 새겨진 새로운 폭력의 숨결을 증언한다.

총을 든 케냐 목축민, 마약에 빠진 멕시코, 양귀비 밀매 아프간. 세계 폭력화 뒤엔 ‘기후 변화’가 있다. 재앙은 이미 시작됐다. _『조선일보』

아마존

정복과 착취, 경외와 공존의 5백 년

존 헤밍 지음 | 최파일 옮김



우리 시대 최고의 아마존 탐험가가 쓴
‘지구의 허파’ 이야기

아마존 정복과 탐험의 역사,
개발과 환경 파괴의 역사,
원주민의 역사 등

아마존의 거의 모든 역사

아마존의 평온은 1500년 서구인이 최초로 도래하면서 산산조각 났다. 이후 5백 년 동안 아마존에서 펼쳐진 무지와 야만의 역사, 그리고 그 대척점의 경외와 공존의 기록을 소개한다. 아마존 원주민은 언제부터 그곳에 살았으며 어떤 세계를 건설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파괴되었을까? 탐험가, 선교사, 기업가, 자연학자, 그리고 수많은 원주민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평생에 걸친 탐험과 연구 끝에 존 헤밍은 아마존을 지키는 강력한 인물이 되었다. _『뉴욕타임즈』

의혹을 팝니다

담배 산업에서 지구 온난화까지 기업의 용병이 된 과학자들

나오미 오레스케스, 에릭 콘웨이 지음 | 유강은 옮김



지구 온난화를 부정하는 한 줌의 과학자들과 어둠의 세력에 대한 충격 보고서.

전 세계 언론의 격찬! 지구 온난화 논쟁의 종지부를 찍다.

★ 2010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 환경정의의 선정, 2012년 올해의 환경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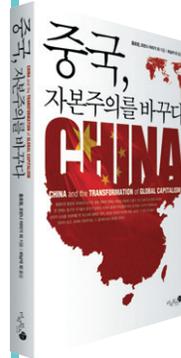
우리는 왜 이미 규명된 과학적 사실들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을까? 담배의 유해성에서부터 스타워즈, 산성비, 오존홀, 지구 온난화에 이르기까지 진실을 가리는 극소수의 과학자들의 이야기. 오늘날 기후 변화를 비롯한 여러 환경 문제의 ‘논쟁’을 만들어낸 주인공은 놀랍게도 1950년대부터 담배가 무해하다고 주장한 이들이었다.

거짓 과학을 퍼뜨리는 조직적 캠페인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속아왔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책 『워싱턴포스트』

정치 경제적 이유로 거대 자본의 용병이 된 과학자들의 타락을 집요하게 추적한 책 『한겨레』

중국, 자본주의를 바꾸다

홍호평, 조반니 아리기 외 지음 | 하남석 외 옮김



중국의 거대 하청 기업이 초국적 기업들을 거느린다.

전 세계 탄광과 유전의 지배권을 놓고 중국의 헤게모니 투쟁이 벌어진다.

캘리포니아 노동자가 증오를 거두고 상하이 노동자의 손을 잡는다.

중국의 부상은 축복일까 아니면 재앙일까? 서구의 우위의 역사는 끝나고, 세계 질서는 중국을 필두로 하는 동아시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인가? 중국 경제는 지속가능한 것인가? 이 책은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 질서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형시키고 있는지를 장기적이고 지구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

우리 사회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새로운 정치 및 경제 질서에 적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머니투데이』

세계의 절반 구하기

왜 서구의 원조와 군사 개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윌리엄 이스털리 지음 | 황규득 옮김



왜 2조 3000억 달러의 서구 원조가 12센트짜리 말라리아 약을 제공하지 못하는가?

왜 민주주의를 수출한다는 서구의 군대는 제국주의의 과오를 반복하는가?

“빈곤의 종말”은 불가능한 프로젝트인가? 개발 경제학의 거장, 윌리엄 이스털리의 역작!

- ★ 2006년 『이코노미스트』, 『워싱턴포스트』, 『파이낸셜타임스』 올해의 책
- ★ 2012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서구의 원조와 군사 개입은 제국주의 시대에 유행하던 ‘백인의 의무’의 뻔뻔한 재탕에 지나지 않으며,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거대한 개발 계획은 재앙으로 끝났다. 도울수록 가난해지는 원조의 역설은 무엇인가? 왜 국제 원조 관료들은 끝없이 실패하는가? 세계의 빈곤을 해결할 길은 장밋빛 원조 계획이 아니라 자유 시장의 자생적 확대에 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경험주의와 빈민에 대한 연민으로 무장한 책 『뉴욕타임스』

갱단 정부 배틀리고, 빈민 황폐화시키는 ‘원조의 역사’를 파헤친다. 『경향신문』

오늘의 세계 분쟁

국제 분쟁 전문가 김재명의 전선 리포트

김재명 지음



국내 최고의 분쟁 전문가 김재명 교수가 세계의 15개 분쟁 지역을 취재한 현장 리포트. 서방 기자들도 만나기 힘든 여러 혁명가, 정치 지도자들과의 생생한 인터뷰와 전쟁 난민, 병사, 국제기구 요원들을 취재한 기록 및 140장의 충격적인 현장 사진이 담겨 있다. 내전과 테러리즘에 대한 냉철한 분석, 그리고 좌절과 분노의 땅에서 전하는 21세기 희망 읽기.



해적 국가

소말리아 어부들은 어떻게 해적이 되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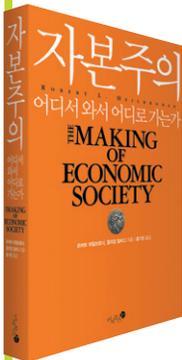
피터 아이흐스테드 지음 | 강해정 옮김

세계의 바다를 위협으로 몰아넣으며 날로 확산되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그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그들은 정말로 자포자기한 어부 무리일 뿐일까? 아니면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계된 조직적인 범죄 집단일까? 소말리아 해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동아프리카 일대를 취재한 본격 르포르타주.

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로버트 하일브로너, 윌리엄 밀버그 지음 | 흥기빈 옮김



시장 경제의 출현에서부터 신자유주의까지 한 권으로 읽는 자본주의의 역사!

사회 제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순수한 자본주의의 경제란 없다. 자본주의는 계속 진화할 뿐이다.

인류의 여명기에서부터 21세기 “신경제”까지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의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한 책.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 로버트 하일브로너가 1962년에 초판을 낸 이래로 현대 자본주의의 변화에 발맞추어 4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12번의 개정을 거친 살아있는 경제사 고전.

경제 사회학자의 탁월한 글발로 경제 현상을 사회 맥락에서 파악한다. _『경향신문』

로버트 하일브로너 Robert Heilbroner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사학자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진보적 경제학자. 『세속의 철학자들』의 저자이며, 전세계적으로 10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대포, 범선, 제국

1400~1700년, 유럽은 어떻게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카를로 치폴라 지음 | 최파일 옮김



가장 약했던 유럽 문명이 세계를 정복한 비결은 효율적인 대포로 무장한 범선

거장의 눈으로 살펴본 대항해시대의 역사

근대 유럽의 팽창을 기술 진보의 측면에서 탁월하게 설명한 근대사의 고전. 가장 약체였던 유럽 문명이 대포와 선박 기술의 혁신으로 군사적 헤게모니를 쥐는 동안, 화약을 처음 발명했던 중국은 왜 우수한 대포를 만들지 못했을까? 동서양 역사를 넘나드는 대가의 필력으로 쓴 대항해시대의 역사.

치폴라의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근대사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_『타임스 리터러리 서플리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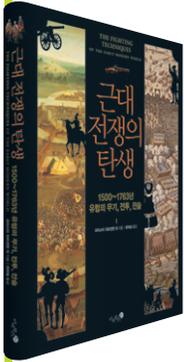
카를로 치폴라 Carlo Cipolla 저명한 이탈리아 역사가이며 ‘서구의 발흥’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학자로 추앙받는다. 중세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유럽 문명의 연속성과 근대 유럽의 경제 성장을 인구, 상업, 지식 등 장기적인 역사적 전환의 복합적 메커니즘으로 설명했다.



근대 전쟁의 탄생

1500~1763년 유럽의 무기, 전투, 전술

크리스터 외르겐젠 외 지음 | 최파일 옮김



근대 초 전쟁의 판도를 바꾼
무기와 전술의 혁신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다양한 컬러 도판과 생생한 지도
백과사전을 능가하는 근대 전쟁의 모든 것!

중세의 중무장 기사들이 몰락하고 보병이 등장하다 | 상비군의 등장
총병은 창병을 어떻게 대체했는가 | 연속 사격술과 총검의 도입
총과 대포의 시대에 기병은 어떻게 진화했는가 | 선회 기동이나 돌격이나
성곽과 요새는 근대에 어떻게 부활했는가 | 포격과 포위, 공병이 지배하는 세상
바다에서 갈레온선이 갤리선을 밀어내고 제왕이 되다 | 포함의 끝없는 진화

근대 초기 유럽에서 일어난 무기와 전술의 발전 등 군사상의 혁신을 소개하는 책. 15세기말 총포의 도입과 거대한 상비군의 등장으로 전술상의 혁신이 일어나면서 전쟁의 양상이 변화한다. 무기의 발달과 전쟁사를 씨줄과 날줄 삼아 근대 전쟁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

십자가 초승달 동맹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독교-이슬람 연합 전쟁사

이언 아몬드 지음 | 최파일 옮김



한 깃발 아래 선 기독교와 이슬람 군대
무슬림 사위를 둔 비잔티움 황제
빈 정복에 앞장섰던 헝가리의 기독교도들

“문명의 충돌” 신화를 반박하고
종교간 공존의 800년 역사를 복원한다.

★ 2010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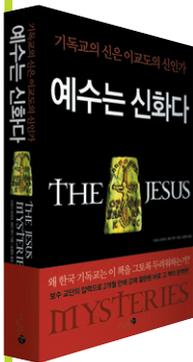
지난 800년 동안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했으나 까마득히 잊힌 기독교도와 무슬림의 군사 동맹사. 에스파냐와 이탈리아, 그리스의 바다와 헝가리의 대평원, 크림반도와 터키 북동부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오가는 수많은 전장에서 하나의 깃발 아래 함께 전진했던 두 종교의 병사들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이슬람이 기독교 유럽과 대립한다는 통념과 달리, 오히려 유럽 문명의 한 부분임을 밝힌 책 _ 『한국일보』

예수는 신화다

기독교의 신은 이교도의 신인가

티모시 프리크, 피터 캔디 지음 | 송영조 옮김



예수는 정말 존재했는가?
수백 년 앞섰던 오시리스-디오니소스 신화와
예수 이야기가 이렇게 똑같은 까닭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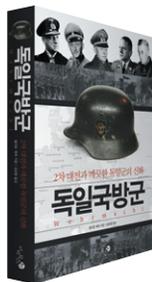
보수 교단의 압력으로 출간 2개월 만에
강제 절판되었던 바로 그 책의 완역판!

- ★ 1999년 「데일리텔레그래프」 올해의 책
- ★ 1999년 아마존 영국·유럽 베스트셀러
- ★ 2008년 SBS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의 모티프가 된 책

예수 이야기는 역사적 진실인가 아니면 신화에 불과한 허구인가? 고대 지중해 세계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던 종교들과 초기 교회를 역추적함으로써 기독교의 기원을 밝힌다. 방대한 문헌학적 증거를 통해 고대 미스터리아의 유대인 판본에 불과했던 예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로 위조·가공되는 과정을 세밀하게 파헤치는 책.

강제 절판 후 7년 만에 해금, 예수 성역에 재도전한다. _『한겨레』

예수는 허구라는 도발적인 주장을 펼치는 책 _『문화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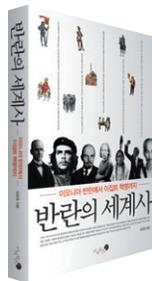


독일 국방군

2차 대전과 깨끗한 독일군의 신화

볼프람 베테 지음 | 김승렬 옮김

2차 대전의 유대인 학살과 전쟁 범죄가 독일 정규군과는 무관하다는 “깨끗한 독일군의 신화”의 허구성을 파헤친다. 독일군은 동부 전선에서 유대인과 슬라브인을 대대적으로 학살하며 나치의 인종 말살 전쟁을 주도했다. ‘명예롭고 용감한 독일군’이라는 이미지를 뒤엎는 충격적인 고발장!



반란의 세계사

이오니아 반란에서 이집트 혁명까지

오준호 지음

고대 그리스의 이오니아 반란에서 현대의 이집트 혁명까지, 동서양 2500년을 모자이크처럼 채워온 민중 반란의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쓴 책. 압제와 폭정에 맞서 싸운 사람들,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투쟁한 민중들의 이야기가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사치 열병

과잉 시대의 돈과 행복

로버트 프랭크 지음 | 이한 옮김

우리는 왜 사치 소비에 그토록 매료되어 있는 것일까? 사치 소비에 쓰는 엄청난 자원과 노력을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쓸 수는 없을까?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는 경제학, 생물학, 진화심리학의 증거들을 통해 과시적 소비의 본질을 파헤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소개한다.



프리캐리아트

21세기 불안정한 청년의 노동

아미미야 가린 지음 | 김미정 옮김

21세기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절망적인 현실을 파헤친 책. 일회용처럼 쓰고 버려지는 청년들은 노예가 아니다. “제발, 살게 좀 해줘!” 일본의 유명한 사회운동가 아미미야 가린이 생생하고 속도감있는 인터뷰를 통해 붕괴된 세대의 실상을 폭로한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이한 지음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그러나 마이클 샌델의 철학은 허술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저자는 마이클 샌델의 저작과 논문을 모두 검토한 후, 정치철학의 고전과 대조하며 샌델 철학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비판한다. 샌델의 책을 읽었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정통 정치철학 교양서.



세속적 휴머니즘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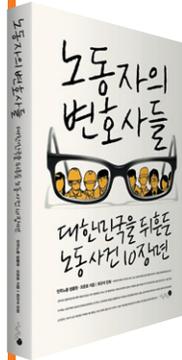
폴 커츠 지음 | 이지열 옮김

현대 지성계가 냉소한 이성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아 '이성의 옹호자'라 불린 철학자 폴 커츠는 휴머니즘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인간적 열망과 과학적 발견을 토대로 하는 세속적 휴머니즘의 역사와 핵심 사상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노동자의 변호사들

대한민국을 뒤흔든 노동 사건 10 장면

민주노총 법률원·오준호 지음 | 최규석 만화



한국 사회 인권의 최전선, 노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난 10년의 기록
노동자의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우리 시대 법과 노동의 현실

여기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묵묵히 지켜온 변호사들이 있다. 법정이라는 가려진 링 위에서 분투해온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 법과 노동의 현실을 깨닫게 된다. 르포르타주 작가 오준호와 만화가 최규석이 노동자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다.

“국민들은 흉대 싸움 잘 끝났다 생각하겠지만… 흉대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노사 합의서에도 여전히 이름을 올리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죠.”

— 흉의대 청소·경비 노동자 집단 해고 사건 우지연 변호사

“문제는 법이 예정한 두 가지 해결 방식 모두 정리해고에 관해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김태욱 변호사